

성별	남	나이	39세	직종	도자기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이○○은 2007년 10월 도자기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2009년 10월에 퇴사하였다. 그림그리기와 골드작업을 하면서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 질병이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이○○은 2007년 10월부터 2년간 주 6일 하루 9시간동안 초벌된 도자기와 재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주로 했다. 금칠 문양 도자기를 원하는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골드 작업을 하는데 금가루에 톨루엔(벤젠)을 희석제로 섞어 칠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공간은 하나의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에 모든 작업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심시간에는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 환풍기 시설은 총 3개가 있고 창문들이 있지만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환풍기만 돌아갔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며 유기용제 냄새가 심할 때만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였다. 톨루엔과 벤젠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노출기준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3. 의학적 소견

당뇨, 고혈압, 신경성질환 병력이 없으며, 신경계질환 가족력 없다. 음주는 전혀 마시지 않으며 흡연력은 4.3갑년이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90Kg에서 60 Kg 으로 체중변화가 있다. 2007년 10월 일을 시작한 후 2009년 5월부터 눈충혈, 메스꺼움, 구토, 복부 팽만감 나타나 K병원 방문, 지방간 및 간질환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해 치료 받았다. 2009년 8월경 눈충혈, 미세한 경련, 얼굴

시림, 숨을 못 쉴 정도의 가슴통증, 어지러움이 있었지만 간 치료를 하면 좋아진다는 소견에 약을 복용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퇴사 몇일 전 부터는 유기용제 냄새가 심할 때는 2~3초간 의식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 2010년 4월 A병원 내과에서는 벤졸 중독 후유증 의증, 과호흡증, 불안장애로 2010년 7월 B병원 산업의학과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 뇌병증으로 2011년 1월 C병원 신경과는 신경계 독성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진단하였으며 MRI상 뇌실질에서 경미한 위축 변화가 의심되고 비정상적인 조영증가나 확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독 결과 나왔다.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시행하여 정상 소견 보였다.

4. 결론

이○○의 '현기 및 어리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는

-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적 정밀진단이 불충분하며 작업환경에서 3~5ppm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낮고, 2년간 노출된 작업력이 현기,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 어려우며,
- 뇌실질의 경미한 위축변화와 뇌병증과 기타 증상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